

고품질로 민족단결시범구 건설하고 있는 운남

한족 · 바이족 · 이족 · 장족 · 나시족 · 파이족 · 리수족... 우리 나라 다민족 대가정의 축도



▲ 운남 이족 패션쇼 '복식 겨루기'(赛装) 축제는 1,3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골 런웨이쇼'(走秀)로 이름 있다.

승객과 농산물, 특산물을 가득 실은 '부흥호' 동력분산식 열차가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설역의 고원을 가로질러 남으로 달린다.

2023년 11월, 려항철도가 통차하면서 운남 대철허족자치주에 기차가 통차하지 않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우리의 송이버섯, 당귀 등 농산물이 열차에 실려 고원을 벗어나면서 고향의 변화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상그랄라시 장족청년 자사차림이 하는 말이다.

■ **운남은 소수민족의 종류가 가장 많은 성급 행정구역으로 우리 나라 다민족 대가정의 축도이다**

"힘써 민족단결진보시범구로 되어야 한다.", "힘써 우리 나라 민족단결진보시범구, 생태문명건설첨봉, 남아시아 지향 동남아 복사중심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5년과 2020년 두번에 걸쳐 운남을 고찰하면서 새 시대 운남 민족사업을 위해 전진 방향을 명확히 가리켜주었다.

이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운남은 민족지역 발전과 민족단결진보를 발전대국에 융합시키고 '가지가 무성하고 줄기가 견장하게'(枝繁叶茂), '석류홍'(石榴红) 등 중점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실시하여 고품질로 민족단결진보시범구를 건설했다. 10년래, 운남 민족지역 경제 발전은 새로운 단

계에 올라섰는바 민족자치 지역 경제총량이 1.2조원에 달해 2015년의 2.2배에 이르렀으며 전 성에서 루계로 137개의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단위를 창건했다.

■ **여러 민족 군중들이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끊임없이 빨라지고 있다**

노강리수족자치주 공산터룡족누족자치현 더룡강향 공당촌에서 촌민 양시평은 신에너지차를 몰고 향의 충전소에 들어섰다. 남방 전력망 더룡강향 35킬로볼트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되면서 더룡강향은 전력 사용이 불안정하던 역사와 고별했다.

"초소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어느 민족도 뒤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운남성은 시종 발전을 민족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총력쇠로 삼아 기초시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현재까지 운남성 민족지역에서 통항, 운영하는 공항은 11개에 달하며 6개 민족자치주에 고속철차 혹은 동력분산식 열차가 통했으며 78개 민족자치지방현에 고등급 도로가 전부 통하고 모든 향(진)과 행정촌에 경화도로, 우정, 인터넷이 100% 통했으며 374개 변경행정촌에서 현대화 변경행복촌을 건설했다.

■ **여러 민족 군중들은 손잡고 아름다운 터전을 함께 건설하고 있다**

별풍을 살펴보고 별집을 조정하고... 립창시 창원과족자치현 반홍촌 당총지 서기 양지량은 촌민들을 이끌고 '달콤한 사업'을 벌였다. 지난 1년간 반홍촌합작사에서 랑질 꿀 18톤을 생산해내어 촌집체 경제소득 232만원을 실현했다.

"여러 민족은 모두 한집안으로서 한집안은 다같이 잘살아야 한다." 운남은 자원경제, 단지(园区) 경제, 통상규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을 민족지역 발전의 중요한 착수점으로 삼아 '1현 1업'(一县一业) 시범현 창건, 특색형 육성을 전력으로 추진했는데 민족단결진보 시범향진과 시범촌에서 기본적으로 '1촌 1품, 1향 1업'(一村一品、一乡一业)의 특색산업 발전 모식을 형성했다.

덕평마이족직파족자치주 망시 삼대산더양향은 '산차'(酸茶) 특색산업을 발전시켰고 소용시 이량현 대묘촌은 민박, 커피집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살수철, 화불철, 목노종가(目

瑙纵歌) 절 등 민족풍정이 짙은 관광 브랜드를 조성했다. 운남은 660개 민족촌마을 관광 향상 시범촌 건설을 완성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이 집문 앞에서 '관광에 의한 치부'를 실현하도록 했다.

한민족, 한가지 행동 계획을 실행했다. 운남은 민족단결진보와 향촌 진흥을 상호 결합시키고 군중들의 소득 증가와 인정 증진을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이 철저히 빈곤에서 벗어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이 더욱 좋은 살림을 향해 활보로 나아가게 했다.

■ **여러 민족의 왕래·교류·융합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장가(藏家) 프락에 홀치기염색 제품을 넣어팔리고 있고 거리에는 이족의 소머리장식품, 나시족의 동파문자 채색그림 등 여러 민족 원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있다... 대리바이족자치주 이원현 정가장촌에서 한족, 바이족, 이족, 장족, 나시족, 파이족, 리수족 등 7개 민족의 170여가구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장족 속담으로 형용하면 모두들 '차와 소금처럼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있다." 촌당지부 서기 하국성이 하는 말이다.

운남성은 '석류홍'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3가지 계획'을 깊이있게 추진해 여러 민족의 전방위적 상감을 추동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했다. 련속 6년 소수민족 우수문화 보호전승과 소수민족 문화제품 프로젝트 항목을 성정부 10가지 헤민 실제제 사무에 포함시켰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석류씨처럼 알알이 굳게 뭉쳤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제도화 기제를 건전히 하고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증강시킨다." 운남성당위 주요 책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여러 민족의 혈맥상통, 신념상통, 문화상통, 경제상호의존, 정감상호회화를 힘써 추동하고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전면적이고 깊이있게 지구적으로 전개하여 여러 민족의 전방위적 상감을 추동함으로써 확고한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에서 운남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운남의 힘을 이바지할 것이다."

/인민넷

"받는 것보다 주는 행복감 더 큼니다!"

심양시 조선족 여성들 아동복지리에 사랑 전달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는 료녕성 한마음애심공익기금회와 함께 일전에 심양시아동복지리를 찾아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두 협회 회장단 대표들과 회원대표 포함 20여명이 참가했다.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는 해마다 음력설을 전후해 독거로인, 불우이웃, 불우어린이 돕기 활동을 견지해오며 아름다운 복지문화를 꽃피워왔다. 올해는 료녕성한마음애심공익기금회와 손잡고 심양시아동복지리 고아들을 위한 사랑 나누기 활동을 기획한 것이다.

협회 리경자 회장과 자선공익부 김향숙 책임자가 회원 위챗방에 고아들을 위한 특별 기부 활동을 진행할 것을 발의하자 67명 회원이 적극적으로 따뜻한 사랑이 담긴 기부금을 송금했고 몇몇 회원들은 내복, 솜털

신, 책가방 등 물품을 협회 사무실에 전달해왔다.

성금이 모이자 협회 자선공익부는 심양시아동복지리로부터 물품 구매 리스트를 받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불, 요구르트, 간식, 솜옷 등 9,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했다. 그중 김계영 부회장은 1,800원 상당의 선물세트 물품을 기부했고 김향숙 부회장은 2,000원을 기부했다.

료녕성한마음애심공익기금회 박학근 부리사장 일행도 성금 6,000원을 심양시아동복지리에 전달했다.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 회원대표들은 사랑 나누기 활동을 통해 받는 것보다 주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털어놓으며 다음에도 애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표했다.

/료녕신문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 진가진 조선족촌

료녕성 반금시 반산현 진가진 조선족촌은 산업이 번영하고 마을 환경이 쾌적하며 농민들이 부유한 아름다운 화폭을 보여주고 있다.

진가진 조선족촌은 최근 몇년 동안 '마을당지부 + 합작사 + 농가'의 산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확고한 수

립과 향촌 진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마을의 산업과 촌민들의 공동부유를 촉진했다.

반산현 진가진 조선족촌 촌민위원회는 2024년 9월 27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 단체 칭호를 수여받았다.

/중국조선어방송넷

박영학 · 라치환 · 박철원 '전국 리퇴직간부 선진개인'으로

올해 초 중공중앙 조직부에서는 선진을 표창하고 바른 기풍을 고양하며 광범한 리퇴직간부를 일출 인도하여 새 로정에서 분발하고 새시대에 기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북경시 순의구 로간부 금열쇠조해작업실 등 150개 리퇴직간부집체에 '전국 리퇴직간부 선진집체' 칭호를 수여하고 주순리 등 450명 리퇴직간부들

에게 '전국 리퇴직간부 선진개인' 칭호를 수여했다.

이 표창에서 흑룡강성 집현현 전임 정령 주석인 박영학, 중국의 첫 동계올림픽 세계 우승자인 라치환, 공상은행부문의 퇴직간부인 박철원 등 3명의 조선족이 영광스럽게 '전국 리퇴직간부 선진개인'으로 선정되었다.

/흑룡강신문

내몽골 캄바스 무형문화유산 '락천별고'



내몽골자치주 오르도스시 캄바스구에서는 일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락천별고'(洛川鼗鼓)를 비롯한 다채로운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펼치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진은 민간예술가들이 펼치는 '락천별고' 공연의 한 장면. /신화넷

600여년 전통의 감남장족자치주 줄다리기



감숙성 감남장족자치주 림담현의 한 거리에서는 일전 줄다리기 민속행사가 성대히 펼쳐졌다. 림담현 줄다리기 민속행사는 6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여러 민족의 수만명 주민들이 길이 1,800미터가 넘는 줄을 잡고 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연신 파이팅을 웨치는 장면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사진은 행사장 현장으로 줄다리기 줄을 나르고 있는 주민들. /신화넷